

인터뷰 |

배우 / 한기중

영화와 연극
뮤지컬을 넘나드는
명품 배우
한기중

“예술이란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인간과 신에 대한 감사”

관객들이 영화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 가운데 한 가지는 그 영화의 주연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주연 배우는 영화가 성공했을 때 가장 먼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한편으로는 흥행에 대한 부담과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영화나 연극, 뮤지컬의 무대는 주연 혼자서 고군분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감독과 스태프, 연기자가 모두 하나가 되어 좋은 작품을 만들고자 노력할 때 비로소 그 작품이 빛난다. 그러므로 어느 작품에서건 든든한 조연배우들의 연기가 뒷받침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언제부터인가 명품 조연이란 말이 쓰이기 시작하더니 MBC '1박2일'이란 프로그램에서 웬만한 주연보다 더 주목받는 명품조연배우 특집을 하기도 했다. 소위 말하는 명품 조연배우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혜성 같은 존재도,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반짝 스타도 아니다. 연극무대와 영화판, 뮤지컬 쪽에서 오랜 동안 같고 닮은 단단한 내공의 소유자들이다.

여기 또 한명의 명품 배우가 있다. 영화배우이자 연극, 뮤지컬 배우인 한기중. 그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작년 한 해 '부러진 화살', '풍산개', '적과의 동침' 등의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조용한 식탁', '굿모닝 파파', '쉬 러브즈 미' 등의 연극과 뮤지컬 무대에서도 주연과 조연으로 왕성한 활동을 보여 주었다. 한 해 동안 실 틈 없이 세 개의 무대에 연속적으로 오른 셈이다.

“작년에는 정말 정신없이 보냈어요. 어느 날은 대본과 시나리오를 함께 챙겨가지고 다녔죠. 나 같은 사람도 이런데 흔히 말하는 스타들은 얼마나 힘들까 싶더군요.”

필모그래피에서 본 한기중의 이미지는 중후한 아버지의 느낌이 강했다. 아마 인터뷰 장소에 가기 전에 본 영화 '신도시인'에서 김태희의 아버지로 나온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 영화는 2003년에 만들어진 15분짜리 단편영화로 김태희라는 배우가 유명해지기 전의 작품이다. 또한 배우 한기중이 미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출연한 영화이기도 하다. 신도시를 배경으로 일어난 뺑소니 사고, 우연히 그 사고 현장을 지나쳐 가다 죽은 사람을 발견하지만 경찰에 알릴 생각을 하지 않는 주인공. 왜냐하면 그 사고 현장에는 자신의 아버지의 것으로 보이는 넥타이핀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아버지의 생일 선물로 준 것이라 더욱 잘 아는 주인공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버지를 만나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넥타이핀을 차 안에서 주었다고 말하며

진실을 외면한다. 짧은 영화였지만 섬뜩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였다.

“그 때만 해도 나는 김태희가 그렇게 잘 될 줄 몰랐습니다. 조금 예쁘다는 생각은 했지만 별로 강한 인상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물론 워낙 짧은 영화라 같이 찍은 장면이 몇 안 되지만 말입니다.”

배우 한기중은 서울예대 방송연예과를 졸업하고 시립가무단과 서울 예술단에 소속되어 5년간 뮤지컬 활동을 하다 93년, 미국 뉴욕으로 떠났다. 귀국할 때까지 7년을 뉴욕에 머물며 그는 HB스튜디오에서 연출과 연기를 배웠다. 그곳은 이미 배우가 된 사람들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문에 집중 트레이닝을 하거나 새로운 캐릭터를 탄생시키기 위해 세공(細工)을 거치는 곳이었다. 한편으로는 그와 비슷한 '끼' 있는 이민자들을 모아 극단 '뉴욕민예'를 창단, <유랑극단> 등 워크숍 공연을 가지기도 했다. HB액터스 스쿨 과정과 생활인으로서의 병행은 결코 기록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설령탕집 웨이터로 시작하여 관광가이드, 한인방송 작가, 공연기획 등 생업에 종사하며 자신을 단련한 기간이었다.

아내 정성화 (백제예술대 실용댄스과 교수)와 함께 그는 '그로서리'를 인수하여 뉴욕에 정착을 할지, 배우로서의 꿈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기로에 서 있었다. 그의 선택은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는 무대를 잊을 수 없었다. 서른둘에 떠나 뉴욕에서 7년을 보내고 서른아홉에 돌아온 것이다. 귀국 두 달 후 그는 마흔이 되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영화나 연극무대 모두 그를 기다려 주지 않았다. 게다가 IMF가 지난 지 얼마 안 되어 영화나 연극 쪽 동료들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가 한 일은 당시 씨네21에서 8개 영화사가 공동 주최한 사상 최대의 오디션에 참가한 것이다. 김기덕, 임순례 감독 등이 자신의 영화에 필요한 배우를 직접 찾기 위해서 열었던 행사였다.





“브로드웨이나 할리웃 등에서는 오디션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경험이 많은 배우나 교수, 음악가들이 늘 자신의 가방에 프로필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 오디션을 볼 준비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 무대는 엔터테인먼트나 매니지먼트 소속이 아니면 역할을 따 내기가 힘든 풍토입니다. 그 오디션 때 배우로서 가장 나이가 많다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지 뭐니까.”

임순례 감독의 <와이키키 브라더스>에서 그가 맡은 역할은 고향인 수안보를 떠나지 않고 약국을 하며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민수였다. 수안보는 실제로 그가 20대에 백코러스를 하며 얼마간 머물렀던 공간이기도 하다. 임순례 감독이 그를 선택한 것은 아마 오랜 동안 같고 다듬어진 자연스러운 연기와 수안보와의 추억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장편, 상업영화와의 첫 인연이었다.

배우에게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 어떻게 이 길로 들어서게 되었느냐는 말에 그는 “고등학교 때만 해도 배우가 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시다. 지원한 대학이 되지 않아 낙담하고 있을 때 우연히 신문공고를 보았죠. ‘전문예술인을 양성합니다’란 서울예술대 3단짜리 광고였어요.” 한기중은 지원을 해 놓고도 친구를 따라 부산에 가느라 합격자 발표가 난 줄도 몰랐다. 그가 방송 쪽으로 해 보았던 일은 단지 동아리 활동으로 방송반을 하면서 15분짜리 공트도 만들고 뉴스도 구성하곤 했는데 재미있었다는 것이다. 아마 그가 방송연예과를 지원하는 데 그 경험이 한몫 했을 것이라고 본다. 방송연예학과에서 임학송 교수로부터 연출도 배우고 방송 쪽의 매커니즘을 공부했지만 그는 연극과 뮤지컬 쪽으로 선회했다. 처음 뮤지컬을 접한 것은 서울예대 방송연예과를 졸업하고 시립 가무단에 들어가고 나서였다. 처음에는 방송국 탤런트 공채를 지원했는데 2차에서 떨어졌다. 그 후 연극무대로 갈 기회가 있었다.

“당시 연극무대에 서면서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많은데 어느 세월에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조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불모지라고도 할 수 있는 뮤지컬을 시작했고 거기서 남경주, 남경읍 등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우리나라 뮤지컬을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는 시립 가무단과 에 있었던 5년 여 동안 ‘판타스틱스’, ‘한여름 밤의 꿈’ 못다한 사랑’ 등 다수의 뮤지컬에 출연했다. 그가 첫무대에 대한 감회를 이야기했다.

“시립가무단 소속단원이었던 87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대작 뮤지컬 ‘양반전’을 공연했습니다. 그 때 배역이 동네 거지1이었고, 나와서 각설이 타령을 불렀어요. 비록 큰 배역은 아니었지만 제 뮤지컬 인생의 첫 무대였지요. 무대에 올랐는데 관객석의 끝이 안 보이더군요. 3층까지 꽉 들어찬 관객들 앞에서 설레기도 하고 무척 흥분되기도 한 공연이었습니다.”

배우는 자신의 첫무대에서 긴장으로 실수를 하거나 무대울렁증이 생기면 많이 힘들다고 한다. 그는 다행히 첫무대에서 큰 실수 없이 공연할 수 있었고 트라우마 없이 계속 배우의 길을 갈 수 있었다. 지금도 후배들에게 첫무대의 중요성을 피력한다는 배우 한기중은 아내와 함께 탭퍼스라는 스쿨을 운영하며 탭댄스 공연단을 만들어 활동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돌아와 두 사람이 함께 연습할 장소가 필요해서 조그맣게 만든 공간이었다. 그것이 알음알음 알려지고 인터넷 매체에 소개되어 제자들이 생겼다. 그 제자들과 함께 탭댄스 공연을 기획 연출하기도 하는 그는 탭댄스와의 인연을 이렇게 회상했다.

“뉴욕 HB 액터스쿨 과정에 춤을 배워야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현대무용을 할까 고민하다가 탭댄스를 하게 되었죠. 집사람은 탭댄스를 전공했고 나는 부전공을 했는데 사실, 아내를 보기 위해서 그쪽을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탭퍼스에서는 내가 기초적인 걸 가르치고 과정이 높아지면 집사람에게 넘기고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서 배운 사람들이 모여서 무용단을 만들어 공연도 하고 협회도 구성하고 했지요.”

아내인 정성화 교수는 우리나라 탭댄스의 대중화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술성과 상업성을 겸비한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인정받고 있다.

배우 한기중은 군포예총 연극협회 회원이기도 하다. 해마다 열리는 전국연극제 경기도 대회나 예인예술제에 참여하기도 하며 국내 유일의 순수 창작뮤지컬 육성 축제인 수리뮤지컬 인큐베이팅 페스티벌과 경기도 국제 아마추어 연극제 등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영화와 연극, 뮤지컬을 넘나들고 있는

그에게 장르 간 특성을 질문했다.

“영화는 일상적인 느낌이 묻어나는 캐릭터를 연기해야 하지만 연극은 좀 더 도드라진 캐릭터가 필요하죠. 뮤지컬은 연기 외에도 부가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 기간 내내 배우는 평범한 일상을 살지 못 합니다. 다른 일을 할 때도 연극을 생각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때도 캐릭터를 떠올리지요. 또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동안 그 연극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느낍니다. 저는 아마 그 긴장감을 즐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출연한 조용한 식탁은 201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기금 선정작으로, 제한된 공간 안에서 대부분 대사만으로 극을 이끌어가는 작품이다. 그러므로 연출가와 작가는 최고의 기량을 지닌 배우들을 찾아내려고 고심했고 마침내 대학로의 연기파 배우인 한기중과 연극배우이자 호서예술대 교수인 박리디아, 영화와 연극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신인배우 민준호가 캐스팅 됐다. 세 사람의 배우는 식탁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15년의 시간을 넘나드는 연기를 한다. 세 사람이 식사를 하는 동안 서서히 떠오르는 15년 전의 일들과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각자, 혹은 서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작품을 이끌어 간다. 다른 무대에서보다 절대적으로 최고의 연기를 필요로 하는 ‘조용한 식탁’ 공연 후 ‘굿모닝 파파’ 에서도 두 배우와 호흡을 맞추었다. 뮤지컬인 ‘SHE LOVES ME’는 헝가리 아름다운 도시 부다페스트의 두 남녀 조지아와 아말리아가 오직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사랑을 키우는 내용이다. 한기중은 마라첵역을 맡아 15년 만에 다시 뮤지컬 무대에 서게 됐다.

소속사에서는 그의 이미지를 중후한 아버지 역으로 밀며 길게 가자고 한다지만 사실은 김태희의 상대배역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젊은 느낌이었다. 눈이 맑고 입매와 인종이 또렷한 배우가 중년의 배우 역할만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주제넘게도 인터뷰이께 매니저를 통해 프로필 사진만 보낼 게 아니라 직접 연출가나 제작자를 찾아 나서라는 조언을 했다. 필모그래피보다 실제의 모습이 훨씬 나은 배우였다. 어쩌면 배우로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할 때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덜 알려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의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적절하고 획기적인 배역만 주어진다면 앞으로 승승장구 할 것 같은 배우다.

무대 위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볼 수 있는 배우라는 직업은 분명 매력 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요즘에 배우는 많다. 연극이나 뮤지컬, 영화 그리고 방송 등 아주 많은 곳에서 배우는 탄생한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연출가나 감독이 원하는 연기를 해낼 수 있는 명품 배우는 그리 흔치 않다. 훗날

어떤 배우로 남고 싶으냐는 질문에 그는 예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60대에도 멜러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게 저의 로망입니다.(웃음) 우리는 일상에서 특정한 상대와 대화하는 동안 겉으로 표현하는 말보다, 속에서 더 많은 말들을 쏟아낸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속에 있는 말을 표현하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영화 ‘은교’ 의 이적요교수보다 훨씬 멋진 연기를 펼치는 배우 한기중을 스크린 속이나 무대 위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

대담 및 글 오은희

한기중

연극, 뮤지컬 배우, 영화배우

서울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 졸업, 뉴욕 H.B 액터스 스쿨에서 연기, 연출, 스테이지 매니지먼트 전공, 브로드웨이 댄스센터 수료, 현 아트컴퍼니 ‘탭퍼스’ 대표

연극 ‘물속의 엘렉트라’ ‘산아 산아’ ‘조용한 식탁’ ‘굿모닝 파파’ 등 다수 뮤지컬 ‘판타스틱스’ ‘한여름 밤의 꿈’ ‘못다한 사랑’ ‘쉬 러브즈 미’ 등 다수 영화 ‘영화는 영화다’ ‘강적’ ‘와이키키 브라더스’ ‘인디안 썸머’ ‘버스정류장’ ‘로드무비’ ‘정글쥬스’ ‘부러진 화살’ ‘풍산개’ 등 다수

